

# 태국 MZ세대의 SNS 활용,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이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

이 정 우\*\*

## 요약

태국의 MZ세대는 정치적 활동 및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는 MZ세대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이 정치 관심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SNS 사용이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토론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경제 상황의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생각하는 MZ세대가 SNS를 통해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정치적 관심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제5차 아시아안 바로미터 조사의 태국 자료를 통한 분석 결과, SNS와 MZ세대 사이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경제적 비관, MZ세대, SNS를 통한 정치 관련 정보 수집 변수의 삼중 교차항(three-way interaction)이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20대와 30대를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20대에서 삼중 교차항의 효과가 나타났다.

**주제어:** 사회연결망, 아시아 바로미터 조사, 인터넷, 정치적 관심, 태국, MZ세대

\* 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고려대 길정아 박사님, 박재후 선생님, 서울대 박준영, 조규린 선생님, 서강대 전경진 선생님, 익명의 심사위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jeongwoo\_lee@korea.ac.kr

## I. 서론

태국의 MZ세대는 인터넷의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Service)을 활용하여 정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해시태그(hashtag)를 통한 활동(Sinpeng 2021)은 MZ세대가 시위를 조직하고 정보를 전파하는 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대학생과 태국 대중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정치적 관심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Dokchaba and Khorpornpraset 2019; Surapreset et al. 2021). 더욱이 미수완(Meesuwan 2016)에 따르면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하는 유권자일수록 정치 참여를 활발히 할 가능성이 컸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SNS의 사용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SNS 공간에 대한 국가 권력의 검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부 권위주의 국가에서 SNS가 효과적으로 정치 정보 전파의 공간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기존 매체에 대한 검열이 심해서였다(Zhuravskaya et al. 2020). 태국에서 인터넷은 정보 전파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왕실모독죄와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 Act 2017)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중의 공간이다. 태국은 민주주의 국가 혹은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처럼 인터넷에서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태국에서는 다른 국가와 같이 SNS에서의 활동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아도 태국에서 인터넷의 사용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 2023, 111).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은 명백히 남는다. 태국 MZ세대가 인터넷에서 활발히 전개한 정치 참여와 관심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밀크티 동맹(#MilkTeaAlliance)을 중심으로 태국의 젊은 시위대는 대만과

홍콩 시위대와 연대하였으며(Phalapong 2022), #FAHRAKPHO 해시태그를 통한 미래진당 지지(McCargo and Chattharakul 2020, 49)를 포함해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현상과 이론이 상반된다면 기존 연구의 논의와 실증적 분석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 연구의 실증적 분석이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젊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면(이정우 2023, 111), 다른 어떤 요인이 개입하는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MZ세대가 경제 상황에 대해 비판을 느낄 때 인터넷을 사용하면 관심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태국에서 경제 문제는 중요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아 왔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가 성공적으로 2006년도 이전까지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포퓰리즘 정책을 제시하여 저소득층을 주요한 지지층을 포섭(co-opt)했기 때문이다(서경교 2015, 274). 선거 권위주의 국가의 정치인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요하게 사용하는 전략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poor) 유권자들을 포섭하는 것이다(Miller 2020). 탁신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을 통해 북부와 북동부 지방의 저소득층을 사로잡았다. 또한, 서경교·고영준(2020)에 따르면 태국 대중은 소득에 상관없이 경제 발전을 잘 이끈다면 군부라도 민주주의 정부라고 인식하였다. 경제 문제는 그만큼 태국 대중에게 중요한 변수로 자리를 잡아 왔으며 MZ세대에게도 그러하다(현시내 2024, 161-164). 본 논문은 MZ세대 유권자가 개인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인터넷 SNS로부터의 정치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면 정치적 관심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2018년에 수행되고 2022년에 공개된 제5차(wave 5) 아시아안 바로미터 조사 태국 자료를 활용한다. 2019년 이후의 자료는 공개된 것이 없어 현재는 활용이 어렵

다. 태국의 경우,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이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태국 MZ세대의 SNS 사용이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다. 2019년 이후에 생겨난 MZ들의 관심이 2018년에도 선행적으로 존재하였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추후 2018년 자료를 포함하여 폭넓은 시계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2020년 이후의 경향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치에 관한 정보를 SNS에서 수집한다고 해서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보다는 개인적인 경제 상황이 비관적이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인식한 MZ세대가 인터넷에서 정부와 정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정치적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대와 30대의 효과를 비교하는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는데, 30대보다 20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 수집하면서 경제 상황에 비관적일 때 정치적 관심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새로운 분석을 제시한다. 제3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를 진행하고 가설을 제시한다. MZ세대, 인터넷 SNS를 통한 정보 수집,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의 삼중주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4장에서는 활용하는 자료, 분석 방법, 변수의 측정에 관해 설명한다. 제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시행한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와 토론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20대와 30대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7장에서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며 마무리 짓는다.

## II. 기존 연구 검토

민주주의 국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인터넷과 SNS 사용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친 영향 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과 SNS 사용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을 확인하였다. 가장 영향력 있는 가설은 인터넷과 SNS 사용이 유권자들이 정치에 관한 정보에 낮은 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고 정치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이다(Zhuravskaya et al. 2020; Ikeda et al. 2013, 308).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 특성에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주로 방문하느냐가 사용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다(Lupia and Philpot 2005).

위 연구들의 주요한 전제는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에 정부에 의한 검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라브스카야 등(Zhuravskaya et al. 2020, 420)의 리뷰 논문에서 지적한 지점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인터넷을 제외한 신문, TV와 같은 기존 매체가 탄압을 받으면 인터넷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연구를 살펴보면, SNS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대중은 야당 엘리트가 SNS에서 제기하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중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Reuter and Szakonyi 2013). 또한, 러시아에서는 유권자 개인이 SNS에서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가 넓을수록 시위 참여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Kopacheva et al. 2023).

2018년 이후 태국의 경우 당시 군부가 ‘불완전한(김홍구·이미지 2019)’ 민간정부로 복귀하기 위해 시도하던 시기였으며 왕실모독법 등을 동원하여 반대파 시민의 인터넷 활동을 강력하게 처벌했다. 그에 반해, 러시아의 권위주의 정권은 인터넷을 암묵적으로 반대파들의 의견

을 표출하게 하는 장소로 허용하였다(Placek 2019). 권위주의 체제에 반발하는 시위가 일어나는 러시아에서는 인터넷에서의 탄압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 표출될 수 있게끔 암묵적으로 허용을 한 것이다. 그러나 태국에서는 SNS를 러시아와 같이 부분적으로라도 자유로운 정치 정보 전파의 현장으로 보기는 힘들다. 태국의 활동가들은 검열을 피하는 혹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정치적 의견을 SNS에서 개진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다른 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SNS에서의 정보를 접했을 때 정치적 관심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까? 태국은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보다도 비교적 더 엄격한 인터넷 검열을 경험하고 있는 곳이며, 이러한 조건에서 인터넷이 어떤 인과관계에서 유권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태국 사례 연구의 문헌을 검토하면, 기존 연구는 모두 인터넷과 SNS의 사용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토론이 분분하다. 인터넷의 사용이 태국 대중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Surapreset et al. 2021; Dokchaba and Khorpornpraset 2019; Meesuwan 2016)는 활발히 진행됐다. 그러나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를 활용한 연구(특히, Meesuwan 2016)의 설계를 반박하면서 인터넷의 사용 자체는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최근 연구(이정우 2023)도 존재하였다.

이정우(2023)는 인터넷 사용이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양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가설로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MZ세대일수록 더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일 것이라 주장하였는데 통계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태국에서 젊은 세대가 트위터의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는 연구(Nyblade et al. 2015; Sinpeng 2021)와 인터넷 사용이

정치 참여를 촉진한다는 기존의 연구(Meesuwan 2016)에 배치되는 결과이다. 그의 한계는 태국 MZ세대의 인터넷 활용이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대안적인 인과관계의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 연구가 아닌 태국에서 수행된 연구(Dokchaba and Khorpornpraset 2019; Surapreset et al. 2021)는 단순한 상관관계만 분석하거나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더라도 통제변수에 관한 적절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은 기존 문헌의 한계를 바탕으로 SNS가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태국 MZ세대가 인터넷에서 보이는 정치 활동에 관한 연구를 더 살펴보자면, 활동가들의 트위터를 포함한 SNS의 해시태그를 분석한 연구 흐름이 존재하였다(Nyblade et al. 2015; Sinpeng 2021). 위 연구 모두 트위터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에서 발견되는 해시태그와 그에 속한 글을 모아 활동가들 사이에서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는가를 분석하였다. 위 연구는 시위의 동학에 중심에 있는 메시지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그러한 메시지가 젊은이들의 정치적 관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연구에서 신펡(Sinpeng 2024)은 SNS가 2023년 총선에서 영향을 미쳤지만, 그 이전에는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태국에서 SNS가 젊은이들의 정치적 관심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신펡의 주장처럼 SNS의 영향이 불분명하거나, 이정우(2023)의 발견처럼 2019년 이전에는 SNS 단일 변수의 효과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관찰된다면, 어떠한 대안적인 인과관계를 통해 SNS가 젊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 이후의 태국 정치를 조망한 논문을 보면(김홍구·이미지 2019; 한유석 2020), 기존 정치 질서를 비판하는 세력이 어떻게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더하여 현시내(2023)는

MZ세대가 주요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였고 앞으로 태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그는 MZ세대가 이전의 세대보다 왕실 개혁에 더 급진적으로 나서는 이유 중 하나로 불평등에 따른 젊은 세대의 비판을 꼽았다(현시내 2024).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태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MZ세대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을 통해 어떻게 정치적 관심을 형성하는가를 살펴보는 것, 통계 분석을 통해 경향을 확인하는 것은 적실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기존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새로운 분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본 논문은 SNS를 사용하는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진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MZ세대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태국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제이다(현시내 2024, 164). 태국 대중은 높은 경제 성장을 이끌면서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원한다고 지적했다(서경교·고영준 2020). 본 논문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경제적 전망이 밝지 않다고 생각하는 MZ세대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정치적 관심이 더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 Ⅲ. 이론적 논의: 태국의 MZ세대, SNS의 사용, 개인적 경제 상황 전망의 삼중주

2015년을 기준으로 모바일 가입자 수와 3G/4G 가입자는 태국의 당시 전체 인구인 6774만을 뛰어넘었다(김남욱 2016). 보급률은 147.6%로 태국인이 사용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90%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 2월에는 동남아시아 최초로 5G 상용 서비스가 시작되며 2019년을 기준으로 1억 2천만여 건의 가입을 기록했다(윤장욱 2022). 2018년에 수행된 제5차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를 보면,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연령별로 보자면 MZ세대가 79.74%, X세대가 56.22%, 1964년 이전에 출생한 세대가 21.17%를 차지했다. 또한, SNS를 정치 토론에 활용한다는 비율은 각각 65.82%, 48.24%, 16.79%(MZ, X, 1964 이전 세대순)이었다. 세대별로 보면 MZ세대가 윗세대와 비교해 SNS 통해서 정치에 관한 의견을 더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와는 다른 질문지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는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y)의 경우에는, 220번 문항을 통해 “SNS를 통해 정치적 행동, 시위를 주도할 의사가 있나요?”를 묻고 있다. 여기서 29세 이하는 31.9%가 할 수도 있다(“might do”)고 답했고, 50대는 18.4%가 그럴 수 있다고 답해(이정우 2023, 14 재인용) 젊은 세대가 윗세대와 비교해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 정치 의견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가 인터넷을 통해 나타내는 목소리는 군부에 대한 반대이다. 군부는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하여 왕실모독법(lese-majeste Law)과 컴퓨터범죄법(Computer Crime Act)을 활용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법의 집행이 군부에 의해 자의적(arbitrary)으로 집행된다는 점에 있었다(Haberkorn 2018). 학생 시위대는 이에 의회 해산, 헌법의 개정,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 금지(McCargo 2021, 179)를 주장하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개는 중심에는 SNS가 자리하였다. 특히 2020년에 젊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던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 Party)이 해산되면서 인터넷에서의 군부 반대에 대한 해시태그 캠페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군부 반대 활동가들은 해시태그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시위하기 위한 사람들을 모집하였다. SNS의 사용은 2020년 이후

의 젊은 세대 시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Sinpeng 2021, 196). 대표적인 학생 활동가 네띠윳 초띠팻파이싼(Netiwit Chotiphathaisal)은 대중이 SNS에서 정보를 얻어 서로 몽칠 수 있게 했으며, 구조적인 불평등과 독재에 대항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고 주장했다(Chotiphathaisal and Aneknumwong 2020).

그러나 SNS의 사용이 모든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다. 태국에서는 왕실모독죄를 바탕으로 SNS의 이용자들을 직접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인터넷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벌할 반대파를 색출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의 탄압은 고문과 살인 위협과 같은 기존의 억압 수단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Kendall-Taylor et al. 2020, 108). 그리고 이런 처벌 가능성이 커지면 반대파의 시민들은 억압을 받는 것에 대한 위협을 계산하게 된다. 억압에서 받는 위협이 높아지고 공포(fear)를 느끼게 된다면 시위에 참여하거나 독재에 반대하는 활동을 참여할 가능성이 작아진다(Young 2019, 141-142).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대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군부로 인한 처벌 가능성, 바뀌지 않는 정치 체제는 SNS에서 토론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MZ세대 모두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정치적 관심을 증대한다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통계 분석을 수행해보았을 때 SNS에서의 정치 관련 정보 수집은 태국의 젊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 2023).

그렇다면 태국과 같이 자유롭지 못한 인터넷의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정치적 관심을 높일까? 여기에서 중요한 요인이 바로 경제와 불평등의 문제이다. 경제에 민감한 MZ세대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 정치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MZ세대에게 불평등을 비롯한 경제 문제는 얼마나 중요

한가? 현시내(2024, 162-164)는 태국의 MZ세대를 “냉전 시기 개발 독재에 의한 경제 성장의 간접적 수혜자이자 성장둔화의 직접적 피해자”라고 보았다. 젊은 세대가 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윗세대에 비교해 더 급진적인 개혁을 원하게 된 이유는 현 국왕의 낮은 인기,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법치의 문제, 권위주의에 대한 불만, 표현의 자유 요구를 포함해 경제적인 요인에도 있다. 그는 태국인들 대다수가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해결이 실패했다고 인식하는 점을 제시한다. 빈부격차는 회의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현시내 2024, 164).

케빈 헤위슨(Kevin Hewison)도 태국의 경제 성장을 두고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태국의 경제 성장은 빈곤을 낮추는 데에 이바지하였고 대부분의 태국인이 경제 성장의 덕을 보았다. 그러나 성장의 결실이 불평등하게 분배되었고, 그러한 상황이 사람들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만든 것이다(Hewison 2014, 849). 이에 더해 서경교·고영준(2020)에 따르면, 태국 대중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끌며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군부라도 민주주의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질보다 정부의 기능적인 역할이 훌륭하다면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기도 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태국 정부가 경제 발전을 이끌지 못하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을 때 대중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역사적인 경향에서 장기간동안 상위 20%가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20%는 5%를 차지하고 있다(Durongkaveroj 2018). 구조적인 불평등은 역사적으로 존재하여왔다.

태국 대중이 전체적으로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최근 들어 특히 MZ세대가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활동가들의 의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장을 잃고 가족들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져 모두 희망을 잃었기 때문에(Chotiphathaisal and Aneknumwong 2020),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젊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고 미래전진당(Future Forward Party)이 해산되면서 시위에 나섰다는 것이다(Pitidol 2023). 실제로 2021년 이후에 발생한 시위는 2020년에 발생한 것보다 훨씬 과격했다. 랫추싸꾼(Lertchoosakul 2021a)은 시위대의 인터뷰를 통해 낮은 소득의 젊은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껴 직업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과격한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MZ세대를 시위로 이끌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터넷 SNS의 사용이 젊은 MZ세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래에 있을 자신의 경제적 전망이 나쁘다고 예측하는 MZ세대이면서 인터넷 SNS를 통해 정치 정보를 수집하면 정치적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의 경제적 전망이 나쁘다고 예측하지 않는 MZ세대이면 SNS를 통해 정치 정보를 수집할 때 정치적 관심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가설을 정리하면서 기존의 가설과의 비교를 통해 가설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존의 가설을 여러 통제변수를 포함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기각하면서 새로운 가설을 채택하고자 한다. 두 가설 중 가설 2는 개인적 경제적 전망에 대한 예측을 제외한 SNS를 통한 정보 수집의 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제시하였다. 만약 가설 2가 기각되고 가설 1이 채택된다면 본 논문의 주장이 타당할 것이다.

*가설 1(새로운 가설): 개인의 경제적 전망이 나쁠 것으로 예측하며, SNS를 통해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MZ세대는 정치적 관심이 높*

을 가능성이 크다.

가설2(기준 가설): SNS를 통해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MZ세대는 정치적 관심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 IV. 경험적 분석 결과

### 1. 자료, 분석 모델, 변수

본 논문은 분석을 위하여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ABS)를 활용한다. ABS는 4년마다 자료를 공개하며 2018년에 수행되고 2022년에 공개된 제5차의 태국 자료를 사용한다. 어떤 매체를 이용하여 주로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지를 묻는 질문은 제5차 조사부터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태국의 젊은 세대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정치적 관심을 분석하기 위해 제5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현재 태국에 관련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공개 자료(open data)이면서 원자료이다. 추후 ABS 제6차 조사 자료가 추가로 공개된다면 본 논문의 가설을 시계열적으로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MZ세대에 의한 시위는 20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일어나 2018년의 데이터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논문은 최대한 활용 가능한 최신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도 SNS가 MZ세대의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사용하는 모델은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이다. 종속변수는 “정치에 관해 얼마만큼 관심이 있습니까?(How interested would you say you are in politics?)”로 정치에 관한 응답자의 주관적 관심에 관한 질문이다. 여기서 정치적 관심은 시위에 관한 관심, 투표에 관한 관심 등으로 세분화될 수도 있다. 그러

나 정치사회학 연구에 따르면, 시위 참여 등의 높은 정치 참여에 관한 결과는 결국 정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참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박선경·신재혁 2019). 정치 참여 등을 종속변수로 놓아도 좋겠지만, 유권자 개인의 주관적인 정치적 관심을 종속변수로 놓는 분석이 좀 더 근본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Prior 2010, 747; 이정우 2023, 89).

종속변수에 대한 응답은 “Very interested,” “Somewhat interested,” “Not very interested,” “Not at all interested”와 같이 위계의 순서로 나뉜다. 이러한 형태의 종속변수에는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적합하다.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 를 가정한 후, 실제로 나타나는 종속변수  $y$ 의 위계 범주에 속하는  $y^*$ 의 범위를 구해 독립변수의 값에 따라  $y$ 의 값을 선택할 확률을 추정하는 방법이다(길정아 2020, 20 재인용). 아래의 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각  $\beta$ 는 독립변수의 회귀계수이다. 독립변수인 “SNS 정보수집,” “MZ세대,” “경제 비관적 전망”이 포함되고, 변수 2개 사이의 이중 교차항(interaction term)이 각각 포함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가설 1을 확인하기 위한 삼중 교차항(three-way interaction term)이 독립변수로 포함된다.

$$\begin{aligned}
 y_i^* &= \beta_1 \times \text{SNS정보수집}_i + \beta_2 \times \text{MZ세대}_i + \beta_3 \times \text{경제비관적전망}_i \\
 &+ \beta_4 \times \text{SNS정보수집}_i \times \text{MZ세대}_i \\
 &+ \beta_5 \times \text{SNS정보수집}_i \times \text{경제비관적전망}_i \\
 &+ \beta_6 \times \text{MZ세대}_i \times \text{경제비관적전망}_i \\
 &+ \beta_7 \times \text{SNS정보수집}_i \times \text{MZ세대}_i \times \text{경제비관적전망}_i + \Sigma \gamma_i \times \text{통제변수}_i + \epsilon_i
 \end{aligned}$$

위 회귀식으로 도출되는  $y^*$ 의 값 범위 통해  $y$ 값을 추정한다. 분석 모델로부터 예상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 3개가 모두 포함된 삼중 교차항이 양의 계수로 통계적 유의미성(statistical significance)을 보여야 한다. 둘째, 가설 2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MZ세대와 SNS정보수집 사이의 교차항이 양의 계

수로 유의미성을 보여야 한다. 가설 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가설 2는 그렇지 않다면 본 논문의 주장이 채택될 것이고, 반대로 가설 2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인다면 기각될 것이다.

〈표 1〉 변수의 기술 통계

변수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종속변수(정치적 관심)	1141	2.40	0.85	1	4
SNS 정보 수집	1074	0.14	0.33	0	1
MZ세대	1141	0.20	0.40	0	1
경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	953	0.06	0.24	0	1
시위 참여 경험	1095	0.07	0.25	0	1
정치적 대화	1124	0.68	0.58	0	2
정부에 대한 신뢰	1078	0.71	0.45	0	1
남성	1141	0.47	0.50	0	1
고등 교육	1114	0.12	0.32	0	1
불교	1138	0.93	0.26	0	1

<표 1>은 변수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를 담고 있다. 설명을 위한 주요한 독립변수는 SNS 정보 수집, 경제 비판적 전망, MZ세대의 여부이다. 역시 ABS 제5차 자료에서 해당하는 질문을 추출하였다. SNS 정보 수집은 52번 문항 “어느 채널이 당신에게 정치와 정부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 가장 중요합니까?(Which one is the most important channel for you to find information about politics and government?)”를 사용하였다. SNS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한다. MZ세대의 여부는 SE3를 활용하여 1981년 이후 탄생자를 1로 입력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범주에 따라 세대를 구분한다.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연구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범주가 필요하다. 동아시아의 밀레

니얼 세대를 비교 연구한 추와 웰시(Chu and Welsh, 2015, 152)는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구분과 같이 1981년 이후 출생으로 본다. 따라서 본 논문도 M세대는 1981년 이후 출생자, Z세대는 1997년 이후 출생자로 정의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1963년 이전 출생자, X세대는 1964년부터 1980년까지로 구분하였다(Dimock, 2019).

<표 2> 베이비붐 세대와 MZ세대의 정치적 관심 비교

세대 구분	전혀 관심 없음	관심 없음	관심 있음	높은 관심 있음
베이비붐세대 (1964년 이전)	16.6%	26.13%	50.25%	7.02%
MZ세대 (1981년 이후)	24.44%	28.44%	44%	3.12%

자료: Asian Barometer Survey (ABS) wave 5, Thailand.

여기서 살펴보면 좋을 기술 통계는 바로 1964년 이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와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이다. MZ세대라고 SNS를 통해 정치 정보를 수집하며 경제에 대한 전망이 비관적이라고 해서 정치적 관심이 베이비붐세대에 비해 높은 것은 아니다. <표 2>는 제5차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 태국 자료의 베이비붐 세대와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것이다.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의 부정적 응답이 베이비붐 세대에 비교해 더 높다. 기본적으로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은 낮지만, 본 논문의 가설처럼 SNS를 통해 정치 정보를 수집하면서 경제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더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 비관적 전망은 6번 문항 “지금으로부터 수년 후에 당신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어떨 것으로 생각합니까?(What do you think the economic situation of your family will be a few years from now?)”를 활용하고,

“부정적일 것이다”(A little worse“ and ”Much worse“)라고 답하였으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하였다.

통제변수는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일곱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시위 참여 경험이다. 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을수록 태국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이정우 2023)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79번 문항을 활용한다. 둘째, 정부에 대한 신뢰이다. 태국에서 수행된 연구를 참고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관심을 증가하게 하므로(Bhuket 2013)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7번 문항을 활용한다. 셋째, 가족, 동료들과의 정치적 대화이다. 주변 사람들과의 정치적인 대화는 유권자 개인의 정치적 흥미를 높이기 때문에(박신경·신재혁 2019) 통제변수로 포함한다. 48번 문항을 활용한다. 하지 않는다고 답하면 0, 조금 한다고 답하면 1, 자주 한다고 답하면 2로 입력하였다. 넷째, 유권자 개인이 불교 신자인지 여부를 포함하였다. 태국은 불교가 정치에 영향도 미치고(옹지인 2022; 김홍구 1996) 유권자도 개인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 정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를 믿을 경우, 2019년 총선에서 군부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컸다(Larsson and Thananithichot 2023). SE6번 문항을 활용하여 불교를 믿으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한다.

이후 나머지 통제변수는 개인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성별을 포함한다. 남성이면 1, 아니면 0으로 통제하였다. 여섯째는 응답자의 대학교육 이수 여부이다. 대학 교육을 받았다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한다. 이는 SE5 문항을 활용하는데 대학 교육 이상의 값인 8 이상이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되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 거주 지역에 따른 고정 효과이다.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는 방콕, 북부, 북동부, 중부, 남부로 구분하고 있다. 각 지역에 거주한다고 답하면 1, 아니면 0으로 입력하였다.

분석에 있어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첫째,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이다. 본 논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제적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아 정치적 관심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정치적 관심이 높기에 경제적 전망을 더 비관적으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경제적 전망을 종속 변수로 하여 별도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관심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결측치(missing data)의 문제가 있다. 종속변수를 포함한 각 변수는 결측치가 있고, 문제는 결측치가 발생하는 문항이 응답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결측치를 모두 제외하고(listwise) 분석을 하게 되면 830개의 관측치를 얻게 된다. 이는 종속변수의 수인 1141개에서 27.3%나 차지한다. 이러한 결측치는 전적으로 무작위의 확률로 결측일 수 없다(missing completely at random). 다시 말해 결측치가 발생하는 자료의 구조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결측치에 대한 다중대체법(multiple imputation)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다중대체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결측치를 가능한 대체 값의 분포에서 추출된 서로 다른 값으로 처리하여 복수의 데이터셋을 만든다. 둘째, 복수의 데이터셋에 대해 각각 분석을 처리한다. 셋째, 분석 결과에서 모수의 추정량과 표본오차를 합한다(고길곤·탁현우 2016, 296).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복수의 데이터셋을 10개 생성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대체법은 정치학에서 결측치를 다루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며(King et al. 2001) 특히 태국 연구에서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의 결측치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다(Jäger 2012).

## V. 실증적 분석 결과와 토론

### 1. 순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

<표 3>는 본 논문의 순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한다. 분석 1은 교차항을 제외한 주요 독립변수 3개를 통제변수와 함께 포함하는 모델이다. SNS를 통한 정치, 정부에 관한 정보 수집은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Z 세대의 정치적 관심은 음의 계수를 보여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경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SNS 변수와 마찬가지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아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통제변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와 시위 참여 경험이었다.

분석 2는 분석 1을 바탕으로 교차항을 포함한 것이다. 교차항을 포함한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볼 수 있다. 첫째, SNS로 정보를 수집하는 MZ세대일수록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컸다. 둘째, 경제적으로 비판을 하는 MZ세대와 경제적 비판을 하고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두 교차항은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SNS 정보수집, MZ세대, 경제적 비판에 대한 삼중 교차항은 양의 계수를 보이고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NS로 정보를 수집하는 MZ세대이면서 경제적 비판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정치적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는 다중매체법을 활용하여 결측치를 처리한 다음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분석 결과, 통제변수와 지역 더미를 포함하여 교차항들의 계수를 살펴보면 <표 2>의 분석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MZ세대 교차항은 역시 음의 계수

를 보인다. SNS와 경제적 비판, MZ세대와 경제적 비판 교차항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가설 1번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변수인 삼중 교차항은 <표 2>와 같은 결과를 보인다.

<표 3> 경험적 분석 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정치적 관심	
	분석 1	분석 2
SNS 정보 수집	0.15(0.24)	1.06(0.36)***
MZ세대	-0.70(0.19)***	-0.46(0.22)**
경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	-0.21(0.30)	-0.41(0.37)
SNS × MZ		-1.79(0.49)***
SNS × 비판		-1.28(0.91)
MZ × 비판		0.52(0.93)
SNS × MZ × 비판		3.16(1.55)**
정부에 대한 신뢰	0.11(0.19)	0.12(0.19)
정치적 대화	2.03(0.14)***	2.07(0.14)***
시위 참여 경험	1.24(0.33)***	1.17(0.33)***
남성	0.21(0.14)	0.22(0.14)
고등 교육	-0.30(0.24)	-0.27(0.24)
불교	0.01(0.37)	0.00(0.37)
지역 터미?	예	예
Pseudo R <sup>2</sup>	0.35	0.37
관측치	830	830

참고: \*p < 0.1; \*\*p < 0.05; \*\*\*p < 0.01

<표 3>와 <표 4>에서 보이는 삼중 교차항은 계수가 종속변수인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를 보이기 위해 <도표 1>을 통해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결과를 제시한다. 각각의 독립변수에 따라서 y값을 계산하여 종속변수의 각 순서 위계 별로 어

편 추정치가 나왔는지를 도표화한 것이다. 종속변수의 범주에 따라, 경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가 있거나 없을 때를 나누고, MZ세대와 SNS 변수 사이의 교차항을 살펴보았다.

“전혀 관심 없음”과 “별로 관심 없음”이라 답한 응답자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비관을 하지 않는 MZ세대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 오히려 정치적 관심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경제적 비관을 하는 MZ세대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답하는 경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경제적 비관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본 논문의 가설이다.

“조금 관심 있음”과 “매우 관심 있음”은 위에서 논한 두 범주의 반대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비관을 하지 않는 MZ세대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떨어졌다. 반대로 경제적 비관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정부와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MZ세대 응답자는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할 가능성이 컸다.

〈표 4〉 다중대체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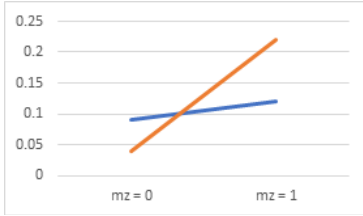
종속변수 설명변수	정치적 관심 분석 3
SNS 정보 수집	1.55(0.36)***
MZ세대	-0.45(0.22)***
경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	-0.41(0.36)
SNS × MZ	-1.79(0.48)***
SNS × 비관	-1.28(0.91)
MZ × 비관	0.52(0.93)
SNS × MZ × 비관	3.16(1.55)**
통제변수?	예
지역 더미?	예
다중대체 횟수	10

참고: \*p < 0.1; \*\*p < 0.05;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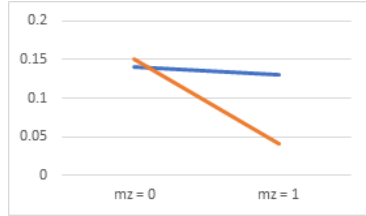
〈도표 1〉 삼중 교차항: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 추정

종속변수: “Not at all interested” (전혀 관심 없음)

경제적 비관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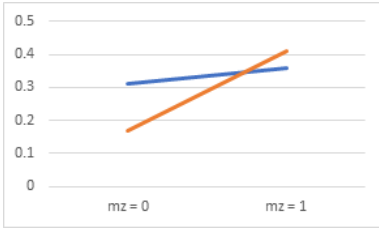


경제적 비관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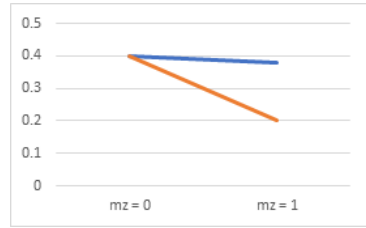


종속변수: “Not very interested” (별로 관심 없음)

경제적 비관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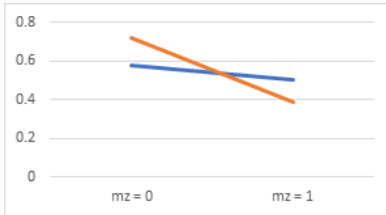


경제적 비관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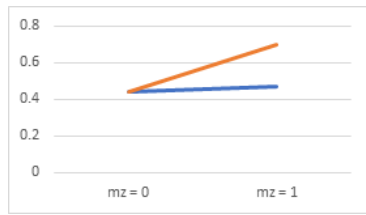


종속변수: “Somewhat interested” (조금 관심 있음)

경제적 비관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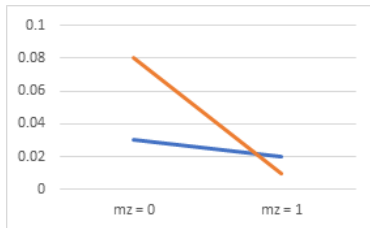


경제적 비관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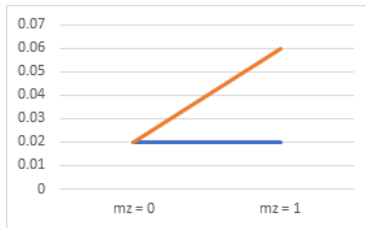


종속변수: “Very interested” (아주 관심 있음)

경제적 비관 = 0



경제적 비관 = 1



참고: 그래프의 파란색 선은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이고, 노란색 선은 SNS를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응답한 선임.

## 2. 분석 결과의 토론

본 논문은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토론을 제시한다. 첫째, 동아시아의 MZ세대는 윗세대와 비교해 정치에 관한 관심이 적지만 어느 세대보다 정치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이다(Chu and Welsh 2015, 126). 그들의 비판은 이는 높은 진학률과 인터넷 사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MZ세대라고 해서 모든 응답자, 유권자가 SNS를 사용한다고 정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단순히 SNS를 사용한다고 해서 MZ세대가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문헌이 주장했던 가설 2번은 기각되었다.

둘째, 만약 가설 2번이 기각되었다면 SNS를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는 MZ세대의 동학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단순히 MZ세대가 SNS를 사용한다고 해서 정치적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변수와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앞으로의 미래를 비관하는 MZ세대가 SNS를 통해 정부와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면 정치적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가설 2번보다는 1번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경교·고영준(2020)와 현시내(2024)의 연구와 같이 경제 변수가 중요하고, MZ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다. 2018년 당시에 태국은 군부가 집권하던 시기였고 왕실모독법과 컴퓨터범죄법을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었다(Haberkorn 2018). 어떤 응답자는 이러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에 무응답으로 일관했을 수도 있다. 실제로 무응답으로 결측치가 적지 않으며, 결측치에 대한 별도의 처리가 없으면 통

계 분석의 결과 자체에 편향이 있을 수 있다. 다중대체법의 장점은 조사를 다시 해서 오차를 줄이는 것보다 경제적이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고길곤·탁현우 2016, 298).

넷째, 본 논문에서 포함하고 있는 통제변수를 제외하고도 다른 변수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바로 유권자의 소득과 직업에 대한 것이다. 소득에 따라서 정치적 관심이 변할 수도 있으며, 직업에 따라, 특히 공무원인가, 그리고 농업의 비중이 높은 태국의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정치적 관심이 바뀔 수도 있다. 공무원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소득 수준을 차지하는 계층으로서 독재자를 지지하는 주요한 집단이다(Rosenfeld 2020). 본 논문은 두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분석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두 변수가 포함되더라도 본 논문의 설명변수인 삼중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추가적인 통제변수의 포함과 분석 결과

종속변수 설명변수	정치적 관심 분석 4
SNS 정보 수집	1.47(0.56)***
MZ세대	-0.62(0.44)
경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	-0.40(0.55)
SNS × MZ	-2.42(0.86)***
SNS × 비관	-2.76(1.66)*
MZ × 비관	-0.90(1.69)
SNS × MZ × 비관	8.17(2.98)***
통제변수?	예
지역 터미?	예
관측치	241
Pseudo R <sup>2</sup>	0.39

참고: \*p < 0.1; \*\*p < 0.05; \*\*\*p < 0.01

## VI. 20대, 30대의 차이에 따른 추가 분석

본 논문의 한계 중 하나는 MZ세대의 범위의 문제이다. 밀레니엄 세대의 시작은 1981년이어서 1981년생과 Z세대의 시작인 1997년생과 같은 범주로 넣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밀레니엄 세대 역시도 1981년부터 1996년생까지이기 때문에, MZ세대의 효과이기보다는 20대와 30대의 차이에 따라 정치적 관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20대와 30대를 구분해 삼중 교차항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주의할 점을 먼저 다루고자 한다. YouGov에서 조사한 세대별 인터넷 사용 경향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 사이의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가 MZ세대와의 차이가 발견되었다(Tan 2022). 또한, 20대와 30대 사이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차이 자체에 관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추가 분석은 MZ세대의 구분을 20대와 30대로 나누어 더 자세히 탐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 연구에서 MZ세대의 범주를 대체할 수 있는 세대 구분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며, 본 논문에서 보이는 20대와 30대의 차이가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삼중 교차항의 효과에 대해 선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번 분석은 20대와 30대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경향을 통계적으로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표 6>은 MZ세대의 구분 대신, 20대와 30대를 각각 구분하고 삼중 교차항에서 어떤 효과를 보이는가를 보고한다. 20대와 SNS 사용 사이의, SNS 사용과 경제적 비판 사이의, 20대와 경제적 비판 사이의 교차항 또한 포함되었으며, 30대 역시 그러한 효과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표 6> 20대와 30대의 차이에 따른 삼중 교차항 분석

종속변수 설명변수	정치적 관심	
	분석 5	분석 6
SNS × 20대	-2.19(1.73)**	-2.19(1.04)**
SNS × 경제적 비관	-2.46(1.72)	-2.46(1.72)
20대 × 경제적 비관	-0.32(1.76)	-0.32(1.76)
SNS × 30대	-2.38(0.97)**	-2.38(0.97)**
30대 × 경제적 비관	4.03(1.97)**	4.03(1.96)**
삼중교차항(20대)	19.80(0.00)***	19.80(1.81)***
삼중교차항(30대)	1.58(3.64)	1.58(3.64)
통계변수?	예	예
지역 터미?	예	예
관측치	241	1141
Pseudo R <sup>2</sup>	0.40	-

참고: \*p < 0.1; \*\*p < 0.05; \*\*\*p < 0.01, 다중대체법에서 다중대체 횟수는 10임.

이번 분석에서도 역시 누락 자료(missing data)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대체법을 활용한 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표 6>의 분석 6이 다중대체법의 결과이다. 분석 결과, 20대와 30대 모두 SNS를 사용하여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치적 관심이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20대에 비교해 개인적인 경제적 전망이 어두울 때 정치적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 교차항의 효과들에도 불구하고 20대는 삼중 교차항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30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 5와 분석 6에서 일관되었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통계적 결과만으로도 20대와 30대의 차이를 단언할 수는 없으며 질적 연구와의 결합 필요성이 있다.

## VII. 결론

본 논문은 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SNS 변수를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MZ세대는 SNS를 통해 해시태그를 이용하여 활발히 군부를 비판하는 등 정치적 표현을 하였고, 시위를 조직하는 창구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Nyblade et al. 2015; Sinpeng 2021). 그러나 SNS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서는 토론이 분분하였다. 연구들 모두 대학생뿐만 아니라 태국 대중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수집이 정치에 관한 관심과 참여로 이어졌다고 주장하였다(Dokchaba and Khorpornpraset 2019; Surapreset et al. 2021). 미수완(Meesuwan 2016)은 인터넷 사용이 정치 관심과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정우(2023)는 미수완의 분석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수정하여 분석할 경우 SNS의 사용은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평 역시 2023년 총선 이전에는 SNS가 정치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Sinpeng 2024).

그러나 태국에서 MZ세대가 인터넷을 바탕으로 정치에 관한 의견을 표출하고 현재의 정치 변동을 이끌고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 연구가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이 MZ세대의 정치적 관심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인가? 본 논문은 MZ세대라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 정치적 관심을 보인다기보다는,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이 중첩되었을 때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앞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MZ세대가 SNS를 통해서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정치적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위의 가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2018년에 수행된 제5차 ABS의 태국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순서 로지스틱 회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SNS와 MZ세대 사이의 교차항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이지 않으며, 경제적인 비관, MZ세대, SNS 정보 수집 변수의 삼중 교차항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1번 가설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SNS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가의 질문은 제5차 조사에서부터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더 이전의 혹은 이후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불가능했다. 추후 더 넓은 시계열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능한 데이터로 분석을 한 결과 본 논문의 가설에 맞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제5차 조사를 통한 탐색적 연구라고 볼 수 있으며, 이후 긴 시계열의 자료를 활용하였을 때 더 폭넓게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ABS의 결측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중대체법을 활용하였다. 이것의 대안으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의 사용을 제안할 수도 있다. 그러나 WVS는 아시안 바로미터 조사와는 다르게 SNS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가를 질문에 포함하지 않고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묻는다. 질문의 성격이 달라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SNS에서 정치, 정부에 관한 정보 수집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이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 편의에 따라서 다른 질문을 포함한 WVS를 사용해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시안 바로미터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다. 추후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수행된 다른 자료의 사용이 가능할 경우, 분석이 좀 더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MZ세대의 정의에 대한 한계이다. MZ세대는 1981년생부터 1996년 이후 생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매우 넓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81년생과 1998년생의 선호를 하나로 정의할 수 있겠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태국 사회에서는 MZ세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다른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M세대와 Z세대를 구분하여 비교하고는 있지만, 태국의 인구학과 경제학 연구 모두 M세대는 역시 1981년생부터 구분한다(Thoumrungrroje 2021; Ruangkanjanases and Wongprasopchai 2017). 태국에서 세대 구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본 논문은 태국에서의 세대 구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퓨리서치 센터의 기준을 사용한다(Dimock 2019). 그러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세대 구분과의 통일(Chu and Welsh 2015)을 통해 비교 연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다. 본 논문은 동시에 20대와 30대의 차이가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삼중 교차항의 효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도 태국의 20대와 30대의 차이를 부각할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통계 분석만으로 20대와 30대의 차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넷째, 삼중 교차항을 이루는 독립변수 중 하나인 경제에 대한 비관, ABS에서 공개하는 질문인 “지금으로부터 수년 후에 당신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까?(What do you think the economic situation of your family will be a few years from now?)”는 태국 유권자의 각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어떤 발화 내용을 보이는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비교 연구는 국가 각각, 혹은 개인 각각의 자세한 맥락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다른 나라 혹은 다수의 사람 사이의 비교를 위해 포괄적인 단어와 문장을 사용하여 설

문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위 설문을 사용해 양적 연구를 통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경제적 비관이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위 분석을 보완하는 관점에서 태국 유권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답론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바로 기존의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통제변수를 포함하면서 분석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박선경·신재혁 2019), 시위 참여 경험(이정우 2023), 정부에 대한 신뢰(Bhuket 2013), 불교의 영향(옹지인 2022; 김홍구 1996; Larsson and Thananithichot 2022)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여도 가설 1번의 삼중 교차항에 대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 더해 본 논문은 SNS 정보 수집, MZ세대, 경제에 대한 비관적 태도의 삼중주가 2019년도 이전 태국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린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양적 연구는 변수를 측정하고 일반화를 위한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 탁월하지만 질적 연구의 깊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본 논문은 양적 분석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비관이 없는 MZ세대일수록 SNS로 정치 정보를 수집할 때에 정치적 관심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부유층(well-off) 혹은 중상위계층(upper middle class)은 정치적 관심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치 정보를 수집, 전파할까? 그리고 렛추싸꾼(Lertchoosakul 2021b)이 발견하는 것처럼 중상위계층과 중하위계층의 간극은 민주화뿐만이 아닌 태국의 정치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해 최신의 자료를 수집하여 양적, 질적 분석이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욱 훌륭한 양적 분석을 위해서 자료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할 것이다. 자료의 질(quality)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해당 자료를 만든 기관이 어디인가도 고려하여야 한다. 누가 자료를 생산했는가도 자료의 신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McMann et al. 2022, 435). 태국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공개 자료의 경우, ABS, WVS 모두 뿌라차티푹 연구소(King Prajadhipok's Institute)를 통해 생산되었다. 추후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생산된 공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좀 더 폭넓은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투 고 일: 2024년 01월 06일

심 사 완 료 일: 2024년 01월 25일

게 재 확 정 일: 2024년 07월 29일

## 참고문헌

- 고길곤·탁현우. 2016. “설문자료의 결측치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다중대체법과 재조사법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4(4): 291-319.
- 김정아. 2020. “정당 간 갈등은 누구의 탓일까: 제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창당 사례와 당파적 책임 귀속.” 『한국정당학회보』 19(3): 5-37.
- 김남욱. 2019. “모바일 강국 태국의 애플리케이션 시장 동향.”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48466](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48466)(검색일: 2024년 1월 4일)
- 김홍구. 1996. “태국불교와 정치적 정통성.” 『동남아시아연구』 4: 57-92.
- 김홍구·이미지. 2019. “태국 2018: 군부의 ‘불완전한’ 민간정부 복귀를 위한 막바지 준비.” 『동남아시아연구』 29(2): 127-159.
- 박선경·신재혁. 2019. “가족끼리의 정치에 관한 대화는 투표 참여 확률을 높일까?” 『21세기정치학회보』 29(4): 1-22.
- 서경교. 2015. “태국 민주주의와 군부 쿠데타: 2006년과 2014년 쿠데타를 중심으로.” 『한국태국학회논총』 22(1): 269-299.
- 서경교·고영준. 2020. “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위기상황: 대중 인식을 통한 분석.” 『동남아시아연구』 30(4): 127-159.
- 옹지인. 2022. “헌법과 승가법의 개정을 통한 세속 권력의 종교 개입.” 『한국태국학회논총』 28(2): 241-272.
- 윤장욱. 2022. “2021년 태국 이동통신산업 정보”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Sn=403&pNttSn=192809](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200&CONTENTS_NO=1&bbsSn=403&pNttSn=192809)(검색일: 2024년 3월 9일)
- 이정우. 2023. “태국의 세대 정치: 세대의 차이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동남아시아연구』 33(4): 85-121.

- 한유석. 2020. “태국 2019: 군부 중심의 연정체제 확립과 고령화 현상의 가속.” 『동남아시아연구』 30(1): 133-156.
- 현시내. 2024. “민주화를 위한 과거와의 대화: 태국의 1973년과 2023년.” 『동아연구』 43(1): 143-178.
- \_\_\_\_\_. 2023. “태국 2022: 위기가 가지고 온 변화의 기회.” 『동남아시아연구』 33(1): 151-169.
- Bhuket, Pichai Ratnatilaka na, 2013. “The Social Facotrs influencing Thai Students’ Political Participation.” *NIDA Development Journal* 53(4): 151-169.
- Chotiphathaisal, Netiwit and Suphanut Aneknumwong. 2020. “Why Thai students are prepared to risk everything.” *Nikkei Asia* August 18. <https://asia.nikkei.com/Opinion/Why-Thai-students-are-prepared-to-risk-everything>(검색일: 2024년 3월 9일)
- Chu, Yun-han, and Bridget Welsh. 2015. “Millennials and East Asia’s Democratic Future.” *Journal of Democracy* 26(2): 151-164.
- Dimock, Michael. 2019. “Defining generations: Where Millennials end and Generation Z begins.” Pew Research Center. January 7. <https://pewrsr.ch/2szqtJz>(검색일: 2024년 3월 9일).
- Dokchaba, Phannapa, and Boonyou Khorpornpraset. 2019. “Political information seeking through new media, political consciousness, political trust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in Bangkok and Metropolitan region.” *Nakkhabut Paritat Journal* 11(3): 78-86.
- Durongkaverroj, Wannaphong. 2018. “Unequal Thailand: trends and consequences.” Development Policy Cente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5. <https://devpolicy.org/unequal-thailand-trends-and-consequences-20181205/>(검색일: 2024년 7월 6일)
- Haberkorn, Tyrell. 2018. “Dictatorship, Monarchy, and Freedom of

- Expression in Thailand.”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7(4): 935-943.
- Hewison, Kevin. 2014. “Considerations on inequality and politics in Thailand.” *Democratization* 21(5): 846-866.
- Ikeda, Kenichi, Sean Richey, and Holly Teresi. 2013. “Browsing Alone: The Differential Impact of Internet Platforms on Political Participation.”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4(3): 305-319.
- Jäger, Kai. 2012. “Why did Thailand’s middle class turn against a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The information-gap hypothesis.” *Democratization* 19(6): 1138-1165.
- Kendall-Taylor, Andrea, Erica Frantz, and Joseph Wright. 2020. “The digital dictators: How technology strengthens autocracy.” *Foreign Affairs* 99(2): 103-115.
- King, Gary, James Honaker, Anne Joseph, and Kenneth Scheve. 2002. “Analyzing Incomplete Political Science Data: An Alternative Algorithm for Multiple Impu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1): 49-69.
- Kopacheva, Elizaveta, Masoud Fatemi, and Kostiantyn Kucher. 2023. “Using social-media-network ties for predicting intended protest participation in Russia.” *Online Social Networks and Media*. 37-38: 100273.
- Larsson, Tomas, and Stithorn Thananithichot. 2023. “Who votes for the virtue? Religion and party choice in Thailand’s 2019 election.” *Party Politics* 29(3): 501-512.
- Lertchoosakul, Kanokrat. 2021a. “Thai Youth Movements in Comparison: White Ribbons in 2020 and Din Daeng in 2021.” *New Mandala* December 15.

<https://www.newmandala.org/thai-youth-movements-in-comparison-white-ribbons-in-2020-and-din-daeng-in-2021/> (검색일: 2024년 3월 9일).

- \_\_\_\_\_. 2021b. "The Paradox of the Thai Middle Class in Democratisation." *TRANS: Trans-Regional and National Studies of Southeast Asia* 9: 65-79.
- Lupia, Arthur, and Tasha Philpot. 2005. "Views from Inside the Net: How Websites Affect Young Adults' Political Interest." *The Journal of Politics* 67(4): 1122-1142.
- McCargo, Duncan. 2021. "Disruptors' dilemma? Thailand's 2020 Gen Z protests." *Critical Asian Studies* 53(2): 175-191.
- McCargo, Duncan, and Anyarat Chattharakul. 2020. *Future Forward: The Rise and Fall of a Thai Political Party*. Copenhagen: NIAS Press.
- McMann, Kelly, Daniel Pemstein, Brigitte Seim, Jan Teorell, and Staffan Lindberg. 2022. "Assessing Data Quality: An Approach and An Application." *Political Analysis* 30: 426-449.
- Meesuwan, Sanyarat. 2016. "The effect of internet use on political participation: could the internet increas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ai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Asia Pacific Studies* 12(2): 57-82.
- Miller, Michael. 2020. "The Strategic Origins of Electoral Authoritarianism."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1): 17-44.
- Nyblade, Benjamin, Angela O'Mahony, and Aim Sinpeng. 2015. "Social Media Data and the Dynamics of Thai Protests."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43(5): 545-566.
- Pankaew, Attasit, Stithorn Thananithichot, and Wichuda Satidporn. 2022.

- “Determinan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ailand: An analysis of survey data (2002-2014).” *Asian Politics & Policy* 14(1): 92-113.
- Phalapong, Pakorn. 2022. “Milk Tea Alliance: Constructing Transnational Identity by Consuming Milk Tea in the Asian Context.” *Thai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26(2): 1-14.
- Pitidol, Thorn. 2023. “Inequality fuelling the fire for Thailand’s political change.” *East Asia Forum* July 11.  
<https://eastasiaforum.org/2023/07/11/inequality-fuelling-the-fire-for-thailands-political-change/> (검색일: 2024년 3월 9일).
- Placek, Matthew. 2019. “Social media and regime support in Russia: does it matter which website is used?” *East European Politics* 35(4): 496-516.
- Prior, Markus. 2010. “You’ve Either Got it or You Don’t? The Stability of Political Interest over the Life Cycle.” *The Journal of Politics* 72(3): 747-766.
- Reuter, Ora John, and David Szakonyi. 2013. “Online social media and political awareness in authoritarian regim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1): 29-51.
- Rosenfeld, Bryn. 2020. *The Autocratic Middle Class: How State Dependency Reduces the Demand for Democrac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angkanjanases, Athapol, and Suphitcha Wongprasopchai. 2017. “Adoption of mobile banking services: An empirical examination between Gen Y and Gen Z in Thailand.” *Journal of Telecommunication, Electronic, and Computer Engineering* 9(3-5): 197-202.
- Sinpeng, Aim. 2024. “Social Media and the DIY Politics in Thailand’s

2023 Election.” *Pacific Affairs* 97(1): 99-116.

\_\_\_\_\_. 2021. “Hashtag activism: social media and the #FreeYouth protests in Thailand.” *Critical Asian Studies* 53(2): 192-205.

Suraprasert, Peeranut, Wanlop Rathachatranon, and Somkiat Wanthana. 2021. “Political Participa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in Faculty of Humanity, Kasetsart University.” *Management Sciences Valaya Alongkorn Review* 2(2): 1-11.

Tan, Samuel. 2022. “Generational trends in Thailand’s social media use: how Gen Z differs from other age groups.” YouGov. October 10. <https://business.yougov.com/content/44004-generational-trends-thailand-social-media-Gen-Z>(검색일: 2024년 3월 18일).

Thoumrunroje, Amonrat. 2021. “Drivers of e-commerce continuance intention: A comparison across Baby Boomers, generations X, Y, and Z in Thailand.” *Creative Business and Sustainability Journal* 43(2): 21-46.

Young, Lauren E. 2019. “The Psychology of State Repression: Fear and Dissent Decisions in Zimbabw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13(1): 140-155.

Zhyravskaya, Ekaterina, Maria Petrova, and Ruben Enikolopov. 2020. “Political Effects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Annual Review of Economics* 12: 415-438.

Abstract

---

## Generation MZ, information-gathering in SNS, pessimism over economy, and political interest in Thailand

Lee, Jeongwoo

PhD Candidat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The MZ generation in Thailand effectively utilized social media system (SNS) for political activities and organizing protests. Consequently, previous research has argued that university students and the Thai public collect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leading to an increase in political interest. However, some studies have shown results indicating that SNS usage does not affect the political interest of the MZ generation. This paper argues, based on the debates in previous research, that the MZ generation, who perceive their personal economic outlook as pessimistic, are more likely to increase political interest when collecting government and political information through SNS. This paper uses data from the 5th wave of the Asian Barometer Survey Thailand data and conduct the analysis with ordinal logistic regression.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SNS and the MZ generation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three-way

interaction term involving economic pessimism, the MZ generation, and SNS information collection significantly affects political interest. Furthermore, analyzing the data by separating the 20s and 30s reveals the effect of the three-way interaction term in the 20s.

**Keywords:** Asia Barometer Survey, Social Network Service, Internet, Political Interest, Thailand, Generation MZ

